

의자

김민정

시인

당신이 쓰러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. ‘섰다’가 아니라 ‘서졌다’인 데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라임인 것이다. 라임, 그건 빌어먹을 운이거나 끝장까지 피어버리는 꽃의 무릎 뼈. 일단은 둥근 것이다. 청이 든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설탕에 절여져 있는 라임을 밥숟갈로 크게 한 술 뜨다 말고 당신이 쓰러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. 모로 눕혀져 생긴 당신만의 방향. 올라다본 벽 위로 비뚜름히 걸려 있던 박제된 푸른바다거북. 누가 재를 여기에 못질한 거니, 개야.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한 그날 당신이 박았고, 일요일마다 당신은 재를 끄집어내려 연주자가 앨범 재킷 사진을 찍을 때 그 꼴의 바이올린이듯 품에 꼭 안았는데, 재 몸 구석구석을 가구용 광택제로 닦을 때의 표정에서 신선한 땀 냄새가 나곤 했다. ‘시름’이 아니라 ‘신선’인 데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뜬 눈인 것이다. 뜬 눈, 그건 죽어서도 죽을 수가 없는 플라스틱 내장이거나 그건 살아서도 살 수가 없는 반질반질한 등껍질의 미지근한 온도. 여전히 집왕거미의 그림자인 것이다. 올라다본 벽 위에 수처럼 놓여 있던 쓰디쓴 털투성이 너 집왕거미. 물은 알겠는데 생은 알 수가 없는 집왕거미의 그림자를 물티슈로 지우다 채 다 못 지운 채 당신이 쓰러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. 예수 흉내에 귀의한 것도 아니면서 사십여 년을 매달려 사는 기분에 대해 어린인 내가 물었을 때 어른인 당신은 답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거나 하는 것이다. 고장난 토스터를 자빠뜨리면서까지 부리나케 현관을 향해 뛰어가는 너는 문밖의 무슨 소리를 들은 거니, 개야. 네 혈떡임과 네 짓음으로 슬그머니 열리는 문이 있다 할 적에 살짝 덜 굳은 당신은 말이지, 그 틈을 지향하게 될까, 그 거리를 지양하고 말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동댕이친 걸 ‘의지’라고 단정하기에 그 어떤 단서는 없다. 다만 ‘사지’가 이에 어울리는 상황이라는 나름의 가늠은 좀 있다.